

[SC 캠퍼스] 용인대, 역대 올림픽 유도 메달리스트만 18 명
2008-09-08 09:56



◇
최민호[사진=올림픽공동취재단]

'한국 유도의 자존심 용인대 유도학과.'

2008 년 베이징올림픽에서 4 개 메달(금 1, 은 2, 동 1)을 따낸 한국 유도는 역대 올림픽에서 총 35 개(금 9 은 14 동 12)의 메달을 획득했다.

매 올림픽에서 유도가 한국의 효자종목이 될 수 있었던 것은 '한국 유도의 산실' 용인대 유도학과가 있었기에 가능했다.

용인대의 전신은 1953 년 설립된 대한유도학교로 그 동안 수많은 선수와 행정가들을 배출했다. 그 면면을 보면 가히 대단하다. 김정행 대한유도회장을 비롯, 안병근 전 국가대표 감독,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이원희 최민호, 그리고 한국 유도의 셋별 왕기춘 등이 용인대 출신이다. 올림픽 메달리스트 중 용인대 출신은 18 명으로 전체 메달의 절반 이상을 책임지고 있다. 그래서 유도 전문가들은 한국 유도를 논할 때

용인대 유도학과를 빼고 말 할 수 없다고 말한다.

용인대는 유도학과가 있는 국내 유일의 대학이다. 때문에 유도에만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이 잘 갖춰져 있다. 유도학과 모집정원은 매년 120 명으로 그 중 40 명은 전국대회에서 4 강에 입상한 선수로만 이뤄지는 훈련단이다. 훈련단은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루 2 차례 강훈에 참여해야 한다. 야간훈련까지 있으니 이론 수업이 있는 오전을 제외하곤 하루 종일 매트 위에서 산다. 성공한 선배들의 노하우 전수도 빼놓을 수 없는 장점이다. 선수 및 지도자 대부분이 용인대 출신이라 멘토가 풍부하다.

김의환 용인대 유도학과 교수는 "용인대 유도가 약하면 한국 유도가 약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. 그 만큼 책임감이 크다. 용인대 선수와 교수들은 학교와 국가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"고 밝혔다.

< 이해완 기자 scblog.chosun.com/parasa>

Source:

<http://sports.chosun.com/news/news.htm?name=/news/life/200809/20080909/89i14005.htm>